



지난 6월 11일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 한 호텔에서 열린 해리고지 생존자 연합회 모임에서 참전용사들이 희생자들을 기리는 촛불을 켜놓고 조의를 표하고 있다. 동영상 보기

“한국전쟁은 옳지않은 용어 6·25 전쟁이라 불러야”

김명섭 연세대 교수

‘6·25전쟁’ 인가 ‘한국전쟁’ 인가. 6·25 발발 61주년을 맞아 한국전쟁학회(회장 허만호 경북대 교수)가 21일 개최하는 춘계 학술대회 발표 예정 논문에서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전쟁 후 반세기가 넘는 지금도 국내에는 여전히 ‘정명(正名·올바른 명명)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에는 아직도 ‘6·25전쟁’부터 ‘6·25 동란(動亂)’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여러 명칭이 혼용되고 있다.

‘한국전쟁’을 주장하는 쪽은 주로 좌파 진영인데 이들은 ‘6·25전쟁’은 ‘냉전·중요·분단의 용어’이기 때문에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쟁 발발 시점을 부각시키는 것은 북측 책임만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또 전쟁 전후 남북한 상황을 보지 않고 전쟁 시점에 집착하는 것은 근시안적 태도라고 주장한다. 이런 태도는 6·25 전쟁 원인을 북한의 남침으로 보는 전통주의 시각에 맞서 한반도 계급갈등에서 파악하는 수정주의로부터 영향을 받은 부분이 적지 않다. ‘한국전쟁’이란 명칭만 해도 미국의 수정주의 학자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의 책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1’ (1981년 출간·국내에는 1986년 번역·출간)이 국내에 소개되는 과정에서 국내에 확산됐다.

김 교수는 그러나 한국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할 경우 전쟁 발발 책임이 모호해지거나 정도될 우려가 있다면서 6·25전쟁이라 부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역사적으로 주요 사건들은 발발시점에 따라 이름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면서 ‘프랑스 7월혁명’과 러시아 2월혁명’ 등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6·25전쟁이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갖는 학자들도 임진왜란을 조선전쟁이라 부르는 것은 옳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학계 일부에서 6·25전쟁이라고 쓰면 북한을 남한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에 6·25 동란이나 사변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전쟁이 꼭 두 권국가 사이가 아니라 상이한 정치 집단 간의 군사적 갈등까지 지칭하는 넓은 개념임을 감안하면 전쟁으로 써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북한의 국제법적 전쟁 책임을 명확히 해두는 차원에서라도 전쟁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미국 북동부 코네티컷 쉐르시에 조성된 전몰용사 위령비석. 6·25전쟁 비(위)에는 ‘잊혀진 전쟁’이라는 뜻의 영문과 함께 ‘Korean War’라고 적혀 있는 반면 베트남전쟁비에는 ‘잊혀지지 못한 전쟁’이란 영문과 함께 ‘Vietnam War’라고 적혀 있다.

커밍스 저서 국내 번역되며 ‘한국전쟁’ 명칭 확산돼 ‘북한이 일으킨 전쟁인데 책임소재 흐릴 수 있어’

김 교수는 영어권에서 ‘Korea War’ 대신 ‘Korean War’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미국이 베트남전쟁만 해도 ‘Vietnam War’가 아니라 ‘Vietnam War’라 부른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Korean War’라는 표현에는 전쟁의 원인과 책임을 ‘코리아’들에게 귀속시키려는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것. 김 교수는 6·25가 당시 미소 냉전체제하에서 국제전의 성격을 띤 점을 감안하면 영문 표기는 ‘the 6·25 War in Korea(1950-53)’ 혹은 ‘the Communist War in Korea(1950-53)’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근 기자 bkjeon@chosun.com

“8박9일간 사투 끝에 우린 끝내 고지 지켰다오”

DMZ 내 ‘해리고지’ 사수 58주년... 영웅들이 모였다

“우리는 그곳을 사지(death place)라고 불렀어요. 해리고지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6·25전쟁 막바지인 1953년 6월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강산리 ‘해리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미군 노병 데이비드 밀스(79)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당시를 떠올렸다. 아직 정정한 그는 9일간 계속된 가장 치열했던 고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영웅 중 한 명이다.



◆참전 노병들의 특별한 만남 밀스씨를 비롯한 영웅 20여명이 지난 11일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시 한 호텔에서 천천히 들어섰다. 처절했던 고지 전투에서 살아남은 미 참전용사들이 해리고지 사수 58주년을 기념해 미국 각지로부터 모여든 것이다.

생존 160명 20번째 기념식 “한·미동맹, 우리들이 만든 것 카투사 용맹 잊을 수 없어요”



“어보” “아버지” 로널드 브래들리 미군 상병이 57년 전 산화한 저편 고지를 향해, 아내 플로렌스(오른쪽)와 딸 론다가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 DMZ 철책에 헌화하고 있다. 동영상 보기

국인의 위대한 노력이 더해져 결국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카투사의 용맹을 잊을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그들의 조국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를라 맥길리피(58)씨는 얼마 전 아내와 딸을 데리고 해리고지를 찾았다. 모녀는 처음 한국을 찾아 해리고지가 바라보이는 철원 청성전망대(OP)를 찾았다. 1953년 6월 11일 그 고지에서 로널드 브래들리(Bradley·당시 21세) 일병은 실종됐다.

“아버지가 실종된 지 67일 만에 태어났어요. 부친은 ‘어머니 날’에 주변 모든 어머니들에게 꽃을 건네 줄 정도로 사려 깊은 분이라고 들어요.” 딸 론다는 때론 신이 나서, 때론 눈물을 흘리며 그 동안 전해 들은 아버지 얘기를 이어갔다. “사촌기 소

녀 적엔 얼굴도 보여주지 않은 채 떠나신 부친을 원망했죠.” 브래들리 부부는 주일 300명이 어울려 사는 미네브레스카주 소읍에서 자란 이웃이었다. 남편 집안은 농사를 지었고, 아내 집안은 식료품점을 운영했다. 둘은 1952년 6월 마을 교회에서 결혼했고, 남편이 징병되자 아내네는 조금이라도 오래 곁에 있으려고 캘리포니아 신병 훈련소까지 쫓아가 침구 정리와 청소 일을 했다. 브래들리 일병은 1953년 4월 1일 한국 땅을 처음 디뎠다.

플로렌스 여사는 전방대를 떠나지 못했다. “남편이 처음 한국에 도착해서 보낸 편지에 ‘여기는 무척 춥다’고 적었어요. ‘공포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녀는 안내를 맡은 사단 연대장에게 물었다. “남편이 또 다른 편지에서 ‘강 쪽으로 잠시 은신했다’고 썼는데, 어디를 말하나요? ‘병거 안에 있다’고 했는데, 병거는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플로렌스 여사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저렇게 고요한 곳에서 정전(停戰)을 불하 할 달 앞두고 많은 이들이 희생됐지만 믿기지 않네요. 언젠가 저쪽(북한)이 개방되면 유해도 찾고 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겠죠.” 해리고지 전투 참전용사와 실종된 브래들리 일병을 찾아온 유가족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조선일보 종편 채널인 “TV조선” 개국일에 방송될 예정이다.

사바나(미국)·철원=정경열 기자 kchung@chosun.com 철원=박영석 기자 yspark@chosun.com

2018 평창 공식후원사 KAL 투어 한진관광 50th Anniversary. Includes travel packages for Alaska, Europe, and Korea, and a cruise advertisement for Kal Pak.